

광주시·전남도 민선 6기 결산

# 4차 산업혁명 대비 먹거리 발굴

## 광주시

광주시 민선 6기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민 주권시대를 선언하고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시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친환경 자동차산업, 에너지 신산업, 문화콘텐츠 융합산업 등 3대 밸리산업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도 했다.

시장이 솔선수범해 특권을 내려놓고, 시의 주요 정책과 예산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협업 등을 강조했다. 그 결과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공약 이행평가 '주민소통' 분야에서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를 받아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위한 노력과 역량을 인정받았다.

5·18 진상규명에도 적극적이었다. 전일 빌딩 헬기탄흔 발견 이후 5·18진실규명지원단을 발족해 적극적인 진실규명 활동

시장 특권 내려놓고 소통 강화 사회적 약자 시책 높은 평가 5·18 국정과제 반영 이끌어 대형발전사업 발굴은 부진

을 전개한 결과, 5·18 현안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시민총회와 시민정치 페스티벌 개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모델 실험은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고 '시민의 목소리 청해 듣는 날' 운영을 통해 시민이 바라는 행정의 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전남과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을 통해 민선 6기 4년 동안 혁신도시 자족도시 완성, 광주전남연구원 통합 출범, 제2남도학속 건립 등의 성과를 거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특·광역시 최초로 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사업 추진,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 소외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눈에 띄었다.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라는 인식 아래 청년드림사업, 교통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청년일자리 정책을 시행해 2018년 중앙정부 일자리 선도 사업으로 선정됐다.

2017년 12월 기준 7만5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민선 6기 대표 정책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할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국가정책으로 채택됐다.

반면, 민선 6기는 초기에 시장 친인척 비리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어 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도시철도 2호선,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제 때 결단을 내리지 못해 사업 전반이 크게 지체되기도 했다. 지역 미래 발전과 관련된 굵직한 사업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성과

## 전남도

이낙연 전 지사의 총리 발탁은 민선 6기 전남도의 명암이 됐다. 전남의 정치적 위상을 한껏 끌어올리면서, 오랜 숙원이었던 KTX 무안국제공항 경우 노선 확정이라는 숙제를 해결했다. 반면 13개월이라는 행정공백도 초래했다. 도정을 이끌 수장의 공백은 새 사업에 대한 결정장애를 불러왔고, 현상 유지 기조에 묶여 전남 발전은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민선 6기 전남도정 4년의 성과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KTX 무안국제공항 경우 확정 등이 꼽힌다. 전남도는 일자리 전담부서인 '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고, 모든 부서의 '일자리 목표관리제'를 운영 하는 등 도정 역량을 결집했다. 그 결과, 1054개 기업 유치와 1만7639개 일자리를 새로 만들었다. 전남형 고용혁신 프로젝트 등을 통해 2016년 고용노동부 일자리

1054곳·1만7639명 달해 KTX 무안공항 경우 확정 13개월 행정공백 발전 정체 2017년 인구 190만명 붕괴

평가에서 종합대상을 받았다.

2년 연속 국비 6조원대, SOC 예산 1조 원 이상 확보라는 기록도 세웠다. 지역 속 원인 3대 SOC 사업의 본격 시동으로 전남발전의 초석을 놓았다. 호남선 KTX 2단계 무안공항 경우 노선 확정으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했다. 또 남해안철도(보성-목포)는 8년만에 공사를 재개했고,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광주-강진) 사업도 착공했다.

빛가람혁신도시 나주의 정주인구는 2만9000명을 넘어섰고, 빛가람 에너지벨

리에는 310개 에너지기업이 투자를 약속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는 공영수면 토지화 실현으로 개발사업 활성화 전환점을 마련했다. 전남의 농가소득은 2014년 대비 27.4% 늘었고, 수산물 연간 생산액은 3조원에 근접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와 '숲 속의 전남' 만들기로 전남의 가치를 한층 높였다. '가고 싶은 섬' 사업을 통해 섬 방문객 수도 2014년 대비 295%나 늘어났다. 여수밤바다, 순천만국가정원, 담양 죽녹원 등 전남 지역 주요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도 지난해 5000만명을 넘어섰다.

100원 택시, 농번기마을공동급식, 서민빛 탐강, 공공수호조리원 등 다양한 시책들은 도민에게 도움이 됐다. 특히 100원 택시는 정부 교통복지 시책에 반영됐다.

아쉬움도 있었다. 2017년 전남 인구가 190만 명대 아래로 내려갔고, 고령화는 더욱 심화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

## 전남 출연기관 경영평가 하락 문화관광재단 하위권

전남도 산하 출연기관들의 경영평가 점수가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전체 13곳 중 10곳에서 뒷걸음질한 것이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13개 산하 출연기관의 지난해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경영실적, 기관장 성과계약)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에서 실적이 떨어졌다.

경영실적에서 청소년미래재단·복지재단·강진의료원은 전년도 다등급에서 마등급(75점 미만)으로 2계단 하락, 최하점을 받았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가등급에서 다등급(80점 이상)으로 2계단 떨어졌고, 문화관광재단·순천의료원은 다등급에서 라등급(75점 이상)으로, 중소기업진흥원·테크노파크는 나등급에서 다등급(80점 이상)으로, 신용보증재단, 여성플라자, 환경산업진흥원, 생활산업진흥원, 녹색에너지연구원 등이 가등급에서 나등급(85점 이상)으로 1계단씩 내려갔다.

반면, 생활산업진흥원만 지난해 다에서 나등급으로 상승했고, 녹색에너지연구원과 환경산업진흥원은 나등급을 유지했다. 가장 높은 가등급(90점 이상) 기관은 단 한곳도 없었다.

기관장 평가에선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원이 우수 등급(90점 이상)을 받았다.

청소년미래재단·테크노파크·순천의료원은 미흡(70점 이상)을, 강진의료원은 매우 미흡(70점 미만) 판정을 받았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탈핵 국토순례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이 26일 광주시청앞에서 노후핵발전소에 대한 수명연장 없는 발전중단과 중대문제 발생한 핵발전소에 대한 조기폐쇄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일대를 순례하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올해 탈핵순례는 23일 영광에서 출발해 서울 광화문까지 28일 간 총 길이 549.5km를 걷게 된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당정 “기초연구비 2022년까지 2배로 확대”

당정은 국가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해 기초연구비를 2022년까지 2배로 확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국가 연구개발 혁신방안' 회의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인 R&D와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도전적인 R&D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비를 2배 확대해 2022년까지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하

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도의 기초연구비는 1조2000억원 수준이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를 내년부터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와 환경 문제의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각각 744억원, 232억원에서 내년엔 1083억원, 501억원으로 늘어났다.

당정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고 실무조정회의도 함께 설치하기로 했

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노무현 정부 당시 가동됐다가 폐지된 바 있다.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면 중앙정부가 역매칭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주체를 연구책임자(교수)에서 연구기관(산학협력단 또는 단과대학, 학과)으로 전환하고, 박사 후 연구원 및 전임연구원의 근로계약을 사실상 의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역 선도연구센터 지원, 고위험 혁신형 R&D 지원체계 마련, PBS(연구과제중심제도) 개편, 연구장비산업 육성 및 실험실 창업 장려 등도 추진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

## 민생경제·일자리 정책 고강도 드라이브 예고

###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 등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를 단행, 민생경제와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고강도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이는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정책 성과 제고를 위한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그동안 성과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경제·고용 분야에 힘을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평가다.

그동안 야권은 청년실업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악화 문제에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여기에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하는 등 분배가 악화했다는 통계가 나오는가 하면 고용지표까지 나빠져 여론 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시점에 경제라인이 교체된 것은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임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정부비서관을 지내던 등 장기간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최

측근 인사로 꼽힌다.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일자리 늘리기를 내걸고 취임 후 직접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문 대통령이 이번에는 최측근 인사에게 일자리 정책을 맡기면서 한층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한 셈이다.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윤종원 OECD 대사의 경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도 청와대 금융경제비서관을 거친 전문관료인 만큼, 경제 문제에서는 반드시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소득주도성장의 현재 경제 기조는 유지하되, 더욱 전면적 정책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는 의미가 풀이된다.

반대로 홍장표 경제수석과 반장식 일자리 수석의 교체를 두는 '그동안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한 경제라인에 대한 사실상 청정신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경제라인 교체를 경질 인사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늘 새로운 활력은 필요하지 않나"라며 "한층 더 속도감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한 문제인정부 2기의 개편으로 바뀔라. 인사권자의 의도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 임야·삽니다

지분물건 환영. 010-6834-7400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공장
- 대지 14,916.9㎡, 건물 998㎡(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건물일부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임대중

◆ 매매가 28억 ◆ (조정가)

### 인원산업(주)

010-3605-0214  
062) 655-4840

## 사추학의 대가 동광스님비법공개

### 40년 내공으로 완성한 사추학 비법을 공개합니다

공개강좌(무료)

- 일시 : 2018년 7월 8일(일) 오후2시
- 장소 : 광주시 동구 대인동 한미쇼핑2층 (일월사 포교원)
- 대상 : 사추학, 역학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 공개강좌에 참석하셔서 새로운 사추학의 비법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교원 (062) 524-8020  
원 장 010-8024-1433

## 2018년도 한국전력전우회 섬(지역)사랑 장학생 선발공고

한국전력전우회에서는 나눔의 실천과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주)제이비씨(구 전우실업)의 발전사업소가 있는 섬 지역 우수학생을 지원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장학사업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제3기 장학생을 선발함을 공고합니다.

- 1. 장학생 선발요강**
  - ◆대상지역 : (주)제이비씨의 66개 도서발전사업소가 있는 16개 지자체 (시·군) - 인천 옹진군, 경기 안산시, 충남 태안군·보령시, 전북 군산시·부안군, 전남 영광군·신안군·진도군·완도군·고흥군·여수시, 경북 울릉군, 경남 통영시, 제주 제주시·서귀포시
  - \*대상 도서(島嶼)는 한전전우회 홈페이지 www.obkpeco.co.kr 선발공고양식 별표 # 참조
  - ◆대상학생 : 대학(전문대학 포함) 1·2·3학년 재학생 또는 복학예정자
  - \*한국전력공사 및 (주)제이비씨 직원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
  - ◆선발인원 : 연간 100명 (시·군별도 선발)
  - ◆장학금액 : 연간 3억원 (1인당 연간 300만원, 학기당 150만원씩 분할지급)
  - ◆선발순위 :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주민등록” 필요
    - 1순위 : (주)제이비씨의 발전사업소가 속한 66개 도서에 “실거주” 하는 주민 또는 직계비속
    - 2순위 : 16개 지자체(시·군)에 “실거주” 하는 주민 또는 직계비속
- 2. 장학생 선발절차**
  - ◆지역 장학생 추천협의회(한전, 지자체, (주)제이비씨대표발전소)에서 심사·평가 후 한전전우회 섬(지역)사랑 장학위원회에서 확정
  - ◆선발결과 안내 : '18. 7. 31(화)까지 개별 통보 및 한전전우회 홈페이지 공지
  - ◆장학중서 수여식 : '18. 8. 24(금), 장소 추후 공지(교통비 및 식비 등 실비 지급)
  - \*장학중서 수여식 불참 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참석 바랍니다.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18. 6. 27(수) 09:00 ~ '18. 7. 8(일) 24:00 까지
  - ◆접수처 및 제출방법 : 해당 지역 한전지사(또는 본부)로 e-mail 접수
  - \*상세내용은 한전전우회 홈페이지 www.obkpeco.co.kr 장학생 선발공고 참조
- 4. 문의** ☎ 02)3702-0853~1

사단법인 한국전력전우회